**어피티 잘쓸레터 <쇼파민> 작성 가이드**

| * 양식을 작성해 [haeun@uppity.co.kr](mailto:haeun@uppity.co.kr)로 보내주세요. * 보내주신 **사연을 선정해** 잘쓸레터에서 소개해드립니다. * 선정된 사연과 솔루션은 기고자의 검토 후 **잘쓸레터, 홈페이지 등 어피티 채널과 어피티의 SNS 및 제휴 채널**를 통해 발행됩니다. * 어피티의 기고형 콘텐츠에서는 **기고자의 개인신상 및 정보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
| --- |

잘쓸레터 ‘쇼파민’에서 여러분이 경험한 모든 소비의 순간을 채집합니다.

***“이것 만큼은 내가 정말 잘 샀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최고의 소비가 있나요?

***“여기에 돈 이만큼 썼어요! 왜냐면요…”***

솔직하게 들려주고 싶은 나만의 이야기가 있나요?

돈을 쓰고 난 뒤, 잔고가 얼마 남았는지는 궁금하지 않아요. 어피티는 그 소비가 독자님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알고싶어요.** 그건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휴가나 어학연수처럼 특정 기간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기념할 만한 날, 특별한 사건일 수도 있을 거예요.

## **(긴급) 이런 분이라면 당장 사연을 보내주세요 🚨**

* **지름신 강림형 👉** 카드에도 지문이 있다면 이미 닳아 없어졌을 것
* **확고한 취향의 소유자 👉** 내가 쓴 영수증이 곧 내 얼굴, 내 체취, 내 행복
* **숨은 관종 👉** 잘쓸레터를 무대삼아 쇼핑 썰 잔뜩 풀어놓고 싶은 사람
* **재야의 고수 👉** 가성비, 가치소비, 할인 꿀팁 가득한 인간 빅데이터 그 자체

독자님의 쇼핑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는 위로와 공감을, 누군가는 즐거운 도파민을 얻을지도 몰라요. 가장 기억에 남는 소비 경험과 생각, 그날의 감정들을 슬쩍 보내주세요. 사연을 선정해 잘쓸레터에서 소개할게요.

🍀 사연이 선정된 분들에게는 네이버페이 5만 원권을 드려요!

## **사연은 이렇게 보내주세요 ✍**

## **1. 사연자 소개**

### **[Part 1] 프로필 Q. 독자 님은 어떤 사람인가요?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 나를 표현하는 사진과 사진 설명
* 닉네임
* 만 나이
* 하는 일: 웹에이전시 / 개발팀 / 3년 차 / 주임 / 퍼블리싱

### **[Part 2] 나의 소비 습관 Q. 본인 만의 소비 철학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타입인가요?**

평소 본인의 소비 스타일을 확인 후, 하이라이트 표시하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구매하는지 간단하게 서술해주세요.

* 평소 소비스타일 (가장 가까운 것에 하이라이트 표시)
  + 계획형 소비: 미리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것만 구매합니다.
  + 충동적 소비: 보고 마음에 들면 바로 구매하는 편입니다.
  + 비교 후 구매: 여러 제품을 비교 분석한 뒤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 절약형 소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구매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 호기심 천국: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 구매 결정 요인 (가장 가까운 것에 하이라이트 표시)
  + 가격: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 품질: 품질이 좋아야 장기적으로 만족합니다.
  + 브랜드: 브랜드의 가치와 신뢰도를 중요시합니다.
  + 추천: 친구나 가족의 추천을 중시합니다.
  + 트렌드: 유행을 따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 **[Part 3] 무엇을 샀나요?**

### **Q. ‘쇼파민’ 물건을 무엇을 위해 어떤 물건을 왜 샀나요?**

* 내가 소개하고 싶은 ‘돈 쓴 이야기’를 한 줄 요약해주세요.

| 예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산 목걸이’, ‘퇴사 후 발리 한달 살기’, ‘인생 첫 독립을 위한 자취방 꾸미기’, ‘재택 근무러의 홈 오피스 꾸미기’ 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
| --- |

* 구매한 제품에 대한 간략한 소개
  + 무엇을, 어떻게, 어떤 목적을 위해, 얼마를 주고 샀는지 담아주세요

| 예시) 이모 중에 가장 어리신 분이 이미 70대 중반에 이르셨어요. 이제 모두들 건강이 좋지 못하셔서 거동도 힘드시고, 집 밖에 나가는 것 또한 쉽지 않으셔요. 그러니, 막 찾아오는 봄기운을 직접 느끼실 수도 없으시겠죠.  그런 이모들을 위해 제가 작년부터 시작한 일이 있어요. 바로 꽃배달이에요! 제가 이모들을 위해 꽃을 주문하는 곳은 조금 특별한 곳인데요, ‘언니네 텃밭’이라는 여성 농민 직거래 플랫폼이랍니다. 그렇게 저는, 19만 원으로 일곱 명의 이모들에게 ‘언니의 꽃’을 선물했어요.  (300자 이내) |
| --- |

### **[Part 4] 제품 및 서비스 소개 Q. ‘쇼파민’ 물건을 구매 후, 만족했던 특장점 또는 불만족스러웠던 포인트가 있나요?**

* 제품의 이름, 종류, 특징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사진 자료가 많으면 많을 수록 좋아요.
  + 구입 시기
  + 제품 및 서비스의 이름
  + 제품 및 서비스의 특징
  + 제품 및 서비스를 사용해 본 첫인상과 간단한 평가
  + 실사용하면서 느낀 장점과 단점
  + 제품 및 서비스의 사진이나 이미지 첨부

| 예시) 아디다스 울트라부스트는 제가 2021년에 추천받아 첫 구매한 이후로 거의 매일 신고 있어요. 일 년에 한 번 이상 구매하는 것 같으니까, 벌써 최소 네 켤레 이상 구매했네요. 다나와에서 찾아보시면, 최신 모델은 거의 20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고 구모델 중에서는 잘 찾으면 9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어요. 저도 보통 9만 원 ~ 12만 원 선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 성능  착용감: 걸을 때 발바닥이 정말 편해요. 기능성 소재인 부스트폼을 신발 밑창에 깔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아주 푹신해요. 또 발목을 잡아줘서 안정적이고, 가벼워서 많이 걸어도 덜 피곤한 기분이에요.  소재: 메시 소재라서 통기성이 좋아 땀도 별로 안 나고, 세탁할 때는 세탁기에 그냥 빨아도 괜찮아서 편해요.  🎨 디자인  형태: 울트라 부스트는 신발 앞 코가 날씬해서 발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기능성이 강조된 신발은 발이 둔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색상: 색상도 흰색과 검정, 두 가지로 어느 옷에나 매치하기 쉬운 기본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는 밝은 흰색을 구매했는데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색상이 차분하고 단정해서 회사 복장 규정이 비즈니스 캐주얼까지 허용해 주는 곳이라면, 출근 신발로도 무난할 것 같아요.  (500자 내외) |
| --- |

### **[Part 5] 구매와 관련된 재밌는 에피소드 Q. ‘쇼파민’ 물건을 구매하면서 기억에 남을 만한 특별한 경험이나 순간이 있나요?**

*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나 이유를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 이 물건을 구매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나 이유는 무엇인가요?
  + 구매 과정에서 겪었던 사연이나 에피소드를 적어주세요.

| 예시) 지난해, 집에서 TV를 보다가 tvN에서 방영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콩콩팥팥)>를 시청하게 되었어요. 도시 생활만 해온 연예인 네 명이 시골로 내려가서 난생처음 농사를 짓는 리얼 버라이어티쇼였는데, 농사의 ‘농’ 자도 모르는 생초보끼리 좌충우돌 파종을 하고 밭일하는 게 재밌어서 자꾸 보게 됐어요. 저 역시 서울에서 태어나 일산 신도시의 태동을 함께하며 한평생 도시에서만 살아온 도시 촌놈이라 더 이입이 됐나봐요. 방송을 보며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어요. ‘농사가 나의 새로운 취미가 되겠구나.’  하지만, 농사짓겠다고 갑자기 귀농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에서 농지를 분양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저희 부부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집에서 가장 가까운 주말농장 1년간 임대하기!  (500자 내외) |
| --- |

### **[Part 6] 가격 및 구입처 Q. 어디에서, 얼마에 샀나요? 최근 가격은 얼마인가요?**

* 사연을 보고 구매를 원하는 독자들을 위해 구매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를 인증할 수 있는 구매 내역이나 영수증도 첨부해주세요.



* + 물건의 가격과 구입한 장소나 온라인 플랫폼 소개
  + 가격 대비 가치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 예시) 제가 선택한 첫 차는 ‘KG모빌리티’의 ‘토레스 T7’입니다! 출시가격 3020만 원에 꼭 필요한 옵션 몇 개를 추가해서 총 가격은 3200만 원이었어요. ‘토레스 T7’은 ‘KG 모빌리티’의 신상 모델인데요, 회사명이 조금 낯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쌍용자동차’는 다들 아시죠? 지난 해 쌍용자동차가 새롭게 바꾼 사명이 KG 모빌리티예요. ‘토레스’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티볼리’의 인기를 이어 출시 직후 어마어마한 인기를 자랑하고 있는 SUV예요. 티볼리처럼 디자인이 세련된 건 물론이고 가성비가 독보적으로 좋은 편이거든요.  (300자 내외) |
| --- |

### **[Part 7] 추천 이유 및 꿀팁 소개 Q. ‘쇼파민’에 소개하신 물건을 살 때 알아두면 좋은 꿀팁이 있을까요?**

* 추천 하는 이유와 구매 시 꿀팁을 알려주세요.(선택할 수 있는 다른 옵션, 할인 방법, 물건을 고를 때 꼭 살펴봐야 할 조건 등)
  + 해당 제품 및 서비스를 추천하는 구체적인 이유나 장점
  + 어떤 타입의 사람들에게 이 물건을 특별히 추천하는지
  + 구매 전 고려했던 다른 옵션이나 대안이 있었다면 그 이유와 선택 과정 설명
  +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조언

| 예시) 저희는 혼수로 꼭 ‘좋은 가구를 한 번에 다 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가구를 들였어요. 모듈 5단 책장을 제외하고는, 다 비싸지 않은 것으로 구매했고 접시 같은 소소한 살림살이들은 제가 자취를 하면서 쓰고 있던 것들로 대신했죠.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10년을 봐도 질리지 않을 만큼 우리 취향에 맞는 가구’를 만나면 그때 구매하고 싶었거든요. 이런 제가 이번에 쇼파민에 소개한 책장은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산업, 공업의 느낌을 그대로 살린 디자인)인데, 이런 존재감 확실한 제품을 집에 한번 들여놓으면 함께 인테리어를 구성하는 다른 가구들과 조화를 이루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조건에 맞는 소품으로 두 가지, 선정해 봤어요.  **이케아 트롤리 RÅSKOG 로스코그 (42,900원)**  어디든 쉽게 옮겨서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카트예요. 수납할 공간도 많고 가격도 저렴해서 ‘국민 트롤리’라고 불릴 만큼 인기 많은 제품입니다. 디자인도 깔끔해서 어디에나 어울려요.    **브라운 벽시계 BC17 화이트 (108,000원)**  지금 저희집 벽에 걸려있는 브라운 벽시계도 추천해요. 심플한 디자인에 무소음이라는 점! 단순하게 생겨서 어디서나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렇게 깔끔하고 완벽한 벽시계가 또 없더라고요.  (300자 내외) |
| --- |